

글 권영숙 _노동사회학자, 본지 편집위원

대담 권영숙·강기훈 _김기설 유서대필조작사건 생존자

『기억과 전망』 이번 회고글은 1991년 5월 투쟁 중에 일어났던 김기설 분신 사망에 대한 검찰의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님과 대담 인터뷰로 진행됐다.

1987년 6월항쟁 후 정초 선거에서 전두환 신군부 정권의 계승자 노태우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 사회는 한편으로 노태우 정권과 변혁운동 재야 등 민주화 세력 간의 일대 격전이 벌어졌고, 노동자 민중 세력이 조직화되면서 계급투쟁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여하튼 이뤄진 것으로 보고 다음 선거에서 민주화 세력의 정권 교체를 준비하자는 자유주의 세력의 입장도 6월항쟁에서 주력이었던 중산층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민주화 이행 이후 정치사회에 대한 엇갈리는 판단 속에서, 기대와 희망이 좌절된 개인들의 분신 사망이 속출했다.

모두 13명의 생명이 스러진 5월 정국 한가운데 5월 8일 분신 사망한 전 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간사 김기설이 있었다. 검찰 경찰은 이미 일련의

죽음들에 대해서 “죽음의 배후가 있다”, “운동권의 사주가 있다”는 이야기를 파다하게 퍼뜨리고 있었다. 이 외중에 그가 재야단체 소속이라는 사실이 중요했다. 돌연 「국민일보」가 김기설의 유서 대필자는 “전민련에 근무하는 K모씨”라는 특종 보도를 했고, 이로써 ‘김기설 분신 사망 사건’은 강기훈에 의한 ‘유서 대필 조작 사건’으로 바뀌었다. 결국 검찰이 공포한 ‘김기설 유서 대필’ 사건에 이어 당시 정원식 총리의 한국외국어대 방문에서 학생들의 계란 투척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운동권’의 ‘패륜적인 행위’극이 완성된다.

우리는 이 투쟁을 1991년 ‘5월 투쟁’으로 일컫는다. 1991년 5월 투쟁은 결국 실패하였다. 1991년은 ‘잊힌 해’가 되었다. 민주화 이행은 1987년 6월항쟁을 중심으로 서술될 뿐, 바로 몇 해 후에 민주화 투쟁과 계급투쟁이 병행되었던 1991년 5월 투쟁은 배제되었다. 그러나 1991년은 잊히지 말아야 할 해이다. 그 투쟁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심화하려는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현재성을 가진다.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35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우선시한 노동 배제적 민주주의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또 불철저한 제도적 민주주의로 인해 적폐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기관의 공권력 남용, 인권 유린, 집회·시위의 자유 억압 등은 여전히 여전하고, 이제 더욱 가공할 ‘법복 귀족’의 정치, ‘검찰 공화국’으로 변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장관이었던 조국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에 대해서 한탄하지만 검찰은 이미 그렇게 없는 죄를 만드는 기법을 적용하고, 죄인들을 양산한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 강기훈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 2014/2/13).

1991년 김기설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다.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28세 청년 강기훈은 재야단체 전민련에 함께 근무했던 동료라는 이유로, 동료의 유서를 대필하면서까지 동료를 죽음에 몰아넣은 배후이자 패륜적인 인물로 ‘인격 살해’당하였다. 그리고 주체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 적극적 행동대는 바로 검찰이었다.

강기훈은 만기 출소한 후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에 나섰다. 그의 말대로 평생 이 프레임에 갇혀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해 “쓸데없지만” “부채 의식 속에서” 자신의 투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행했다. 그 결과 유일한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은 허위였음이 밝혀졌고, 검찰의 공소장에 전혀 토 달지 않고 유죄를 확정했던 법원은 재심을 거쳐 강기

훈의 무죄를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하수인들 그 누구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국가도 검찰도 법원도 사과하지 않았다. 강기훈은 지금도 민사재판을 통해서 그 하수인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 대법원은 3년째 판결을 미루고 있다.

이 대답은 잊힌 해로 불리는 1991년을 다시 환기하고 김기설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의 기억을 정확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강기훈과 심층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대답은 2021년 10월 26일, 11월 14일 두 차례 진행되었다. 기억과 전망, 정확한 기억 속에서만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세울 수 있다. 왜곡되고 불철저한 기억은 왜곡되고 불철저한 미래를 낳는다.

1. 과거사 진상 규명과 국가범죄를 보는 시각

권영숙(이하 권): 요즘 근황부터 묻고자 합니다. 요즘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강기훈(이하 강): 장흥지역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을 만나 과거사에 대한 기억을 청취 기록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피해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예산을 지원해서 1차 기록작업은 내년 2월까지, 조사는 올해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 이후에는 진화위(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피해 신청과 기록 보고서 출판 등 두 가지 작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23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앞으로 40명 인터뷰 등 60명 정도 명단을 추출했는데, 상황에 따라 추가할 가능성도 있어요.

피해자에게는 과거사가 아닌 현재진행 시제

권: 묘하겠습니다. 1991년 김기설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강기훈이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피해자 조사 기록 작업을 하고 있다니. 둘 다 말하자면 ‘국가 테러’,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이 아닌가요.

강: 아직도 여전히 그 상태죠. 가해자 피해자 그대로예요. 당사자들이 입 다물고 있죠.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권: 그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말할 수 없고, 말해지지 않은 것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광주항쟁도 그렇고 4·3항쟁도 뒤늦게 다양한 피해들이 알려졌고. 특히 여성 피해자의 경우 더 그렇고요. 국가가 추념식을 주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현지에서는 묻혀져 있고 쉬쉬하고 말하지 못하는 진실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강: 그 이유는 가해자들이 사회적 지도층이 돼 있고, 그들의 2, 3세가 나왔고 그들이 대를 이어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피해자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과거사가 아니예요. 여전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지요.

권: 여전히 현대사의 일부이죠. 해방 정국에서부터 한국 현대사의 국가범죄 사건들이 일어났던 구조가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사회

가 바뀌지 않은 증거이기도 한 것이지요.

강: 그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관이 주도한다고 하니 믿지 않고 코웃음을 치는거죠. 이번 조사 작업하면서 약간 충격받았어요. 어떤 어르신한 분을 만나서요. “나는 아무 것도 몰라” 하지만, 그 표정으로 읽히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와서 너네들에게 이야기해 봤자 무엇이 변하겠냐’ 하는. “나는 무식해”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후손들도 다 똑똑하고 학자이고 그래요. 그 후손들을 위해 입을 다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나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태도인 거죠. 그것을 “나는 무식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죠.

권: 국가가 과거사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이 진일보했다는 것이, 한편으로 피해를 인정하고, 일정한 정도 배·보상하겠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역사적인 의례로 만들고 국가기념일로 추념하는 것, 이 두 가지로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과거사는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고, 진실 규명은 불철저한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이 두 가지 방식에 걸여된 것이 있는 것이겠지요.

강: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잖아요. 바로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 그걸 안 하면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이 아니죠. 몇 십 년 지나서, ‘아 그것 미안해’ 그러면서 ‘지금부터 그 죄가 없어졌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으로 마음이 풀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진짜로 그럴까요?

권: 잊고 싶기도 하고 용서해야 자신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합당한가인 거죠. 그렇게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과 추념해주는 것이, 사실은 국가가 화해와 용서를 독려하는 거잖아요. 추념하라고 하면서 망각하라고 하는 것이고. 당신의 피해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가해자를 정확히 가해자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다 진행하는 것이죠. 의문사 진상 규명이 실제로 이 사회를 바꾸는 힘으로 작동해야 하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 역사를 바로잡았구나 하는.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역사를 바로잡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드는 것이지요.

강: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뭐하러 그것을 해요. 과거에 피해 받았던 사람들을 불쏘시개로 삼아서 당대에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것은 국가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마치 제3자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권: 덧붙이고 싶은 것이 김대중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을 때, 연결되는 이슈가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현대사의 비극이라는 여러 결과물들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빨갱이 사냥을 하는 방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했지요. 그런데 ‘민주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받지 않은 채 과거사를 끌어와서, 증심화하고, 정쟁화해 버렸잖아요.

강: 네. 그때 그런 식으로 과거사를 끌어내서 역사를 정치적인 정쟁을 만들어버리고, 진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지요.

권: 김대중 정부가 과거사 진상 규명과 청산을 큰 사업으로 하겠다고 나섰고, 우파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고요. 당시 정권 교체 이후 이전 기득권 세력이었고 장기적인 집권 세력을 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니, 상대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테고, 그것을 들고 나오는 순간, 상대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정립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니, 우파들은 ‘재네들이 싸움을 걸어오는구나’식이 되었죠.

강: 당시 DJ가 과연 몰랐을까요? 과거사 문제로 접근했을 때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갔던 것이지요.

권: 그렇게 정치적으로 과거사 진상 규명 담론이 만들어졌고, 핵심인 국가보안법 문제는 아예 언급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 즉 과거사를 진상 규명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보상하는 것만도 대단하고, 국가로선 최선이야’ 이런 식인 거지요.

강: 그래도 관에서 한다면 말 안 할 사람도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약간 유리한 게 있어요. 유족들은 자기 방어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법으로 정했다고 하니, 이제 나도 말을 할 수 있겠네, 말을 안 하던 사람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긴 하죠. 민간 차원에서 한다면 한 마디도 하지 않겠지만요.

하지만 나오는 말들을 잘 들어야 해요. 기억에 마사지를 하거든요. 우익이 한 일이 좌익이 한 일이 되고, 좌익이 한 일이 우익이 한 일이 되기도 하고. 아주 상반된 견해를 어떤 지역에서는 내놓습니다. 목격자 제3자들의 증언들도 뒤죽박죽이 되기도 해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돼

버리고 개인적인 복수들도 섞여 있어요. 좌익 활동을 했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을 죽여서 저수지에 던진 사건이 그러했어요.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권: 개인 간의 원한이나 사적인 복수에 기초한 폭력이 난무했는데, 이것들이 사상적인 좌우 이념 대립으로 그려지기도 한다는 점. 해방 정국과 대한민국이 건국되던 그 시대에 좌우 이념 대립의 구도가 있었으니 그 구도로 민간인 간의 폭력이 날조되거나 분류되기도 하겠죠.

강: 단독 정부 수립 이후에 그런 폭력을 부추기도 했고, 그런 폭력의 상승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요.

권: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 형성 과정이기도 했어요. 한국은 국가 형성 자체가 국가 테러를 통해서 이뤄졌다는 점이 있지요. 국가 건설이 좌우 이념 대립을 부추기거나 그것에 기초하여 가능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민간인 테러나 학살을 부추기고 경비대나 국군이 함께 공조하기도 했죠. 여수·순천 반란과 학살, 제주 4·3항쟁과 학살로 이어진 과정 자체가 바로 피로 국가를 만들었다는 국가의 기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제헌의회가 선 후에도 백색 테러가 난무했어요. 그 갈등과 긴장, 증오의 에너지가 축적되면서 한국전쟁으로 폭발하였습니다. 한국전쟁도 단지 국제적인 좌우 대립의 대리전이 아니라, 단지 정규군과 정규군 간의 전투만이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다 전쟁과 전쟁 테러에 연루되고 가담했던 전쟁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전쟁사에서 아래로부터의 기술은 아예 없었지요. 금단의 역사였고, 말할 수 없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진실과화해위원회 역시 이름에 진실, 화해

가 들어가는데, 이미 예단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강: 그렇지요. 진화위가 가진 한계를 이름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권: 국가가 사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 주체잖아요. 그런데 사법적인 절차와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처벌을 아예 포기한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결론을 미리 내려 놓고 하는 진실 규명 작업인 거지요.

강: 한국의 경우는 특히,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 국제적으로 제기된 문제들까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기득권 세력 중에서 국가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인생들이 없어요.

권: 지금 국가범죄와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국전쟁의 피해자나 가해자인 이들을 만나면서 강기훈 본인의 경험, 기억, 사건과 오버랩되고 중첩되지 않던가요?

강: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없지 않지만, 나의 경우는 새 발의 피죠. 그분들은 70년 가까이 가슴속에 묻고, 상처를 안고 산 것이지요. 그것을 말도 못하고요.

2. 1987년 6월항쟁 아닌 1991년 5월

권: 『기억과 전망』에서 “1991년과 강기훈”이라는 주제를 다루자고 제가 제안한 이유는 현재성 때문입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현대사에 대한 공통의 기억도 있지만 기억의 현재성이란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를 제

대로 규명하지 않고, 진실에 다가가지 않았고, 기억의 날조도 있고…
현재의 지형 속에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점 말입니다.

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30년이 훌쩍 넘어서면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비판 담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민주주의 위기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87년 체제의 민주주의를 수호한 셈이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강화되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87년 체제의 민주주의의 한계도 그대로 강화된 셈입니다. 촛불 정부라는 문 정권 이후 자유주의 정치 세력의 재집권은 당연한 듯이 보였는데, 그러나 3년도 안 돼 정권의 위기에 봉착하여 대선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민주주의가 허약하고 무능합니다. 촛불 정부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진전시켰는가 하는 점에서 무능했고, 자유주의 정치의 민주주의 자체가 불철저했으며, 87년 이후 민주주의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측면까지 있죠. 그것이 지금 많은 문제 제기와 불만들, 그리고 다음 대선 결과를 예측 불허로 만들고 있습니다.

강: 지금은 이렇게 끝내는 게 맞다고 봐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촛불 정부의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이지요.

권: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에서 1991년을 끌어들여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한국의 민주주의 서사는, 대부분 1987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기억도 그것으로 강화하고요. 그를 기초로 한 민주 대 반민주 구도 속에서 자유주의 헤게모니도 강화되었고, 386이라는 정치적 엘리트 세력도 만들어졌지요.

하지만 과연 그런 일원적인 기억이 적절하고 맞는가, 87년 항쟁이 민주화의 기억을 계속 일원적으로 끌어온 것으로 기록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점이지요. 87년 6월항쟁을 중심으로 한 단선적인 내러티브로 기록하기에는, 근 30~40년 민주화 이행 이후 과정과 사회의 모습은 그것으로 설명이 다 되지 않는 복합적인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87년 6월항쟁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라고 볼 때, 가장 걸리는 것이 바로 1991년입니다. 소급하면 1980년이 있겠지만, 1980년에 대해선 일단 논외로 하고, 87년 이후 하나의 전환점으로 서 1991년을 좀더 심도 깊게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잊힐 수 없는, 잊힌 해

권: 저는 1991년을 ‘꺾어진 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1991년을 ‘잊힌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91년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잊힐 수 없는데, 잊힌 해라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1991년은 잊힌 해가 되었을까요?

강: 잊고 싶으니까 그런 것이겠지요. 뭔가 이질적인 요소였지요. 1987년 체제를 통해서 정치적 민주화가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계속 역사가 발전한다고 규정하고 싶은 거고요. 그 가운데 저는 어떤 돌출된 사건의 피해자일 뿐이고요. 하지만 그 체제는 한번도 바뀐 적이 없지요.

권: 그 당시로서는, 1987년으로부터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쌓인 것이 다시 폭발한 것이 1991년인데요. 개헌 이후 정초 선거에서 전두환의 후계자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고. 그것이 공식적으로는 민주화 이후 첫 민주 정부입니다. 그 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문제가 1991년까지 이어졌거든요.

강: 1989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가 되고 그것이 골치 아팠지요. 굉장히 불편한 것이거든요. 권 선생님의 표현대로 하면 자유주의 세력이 국회 다수당이 된다는 것은요. 그래서 김영삼과 함께 '3당합당'을 이룬 것이고요. 그때 경약을 했어요. 이 다음에는 더 큰 일이 나겠다. 제가 연합단체에 들어간 것이 1989년 3월인데요. 바로 그 전인 1월에 3당합당이 되었고, 전민련도 그때쯤 만들어졌지요, 거기로 재야가 다 모였지요.

권: 그때, 김기설 분신과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이 시작된 그 전후의 맥락을 당사자의 입으로 정확히 듣고 싶어요. 이는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이 벌어질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뿐만 아니라, 당시 운동 지형에 대한 얘깁니다. 그때가 바야흐로 운동의 변화, 운동의 자기 전환도 이뤄질 때였습니다. 저는 이때를 한국 민주화 이행 이후 '전환점', 혹은 '꺾어진 해'라고 규정합니다. 그때 김기설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은 운동의 책임과 반성도 요구하기에, 이 사건을 전후한 맥락을 피해자의 증언으로 듣고 기록하고 싶습니다.

강: 누구도 선생님처럼 그것을 이렇게 길게 진지하게 질문하진 않았는데요. 그리고 사실 그때 얘기는 많이 잊어버렸고, 되도록 피해 가고 싶은데요. 말하자면 긴 얘기인데요.

세상이 한번 뒤집어지는 경험, 80년 광주를 만나다

권: 강기훈의 운동 백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간단히 가족사, 개인사 얘기로 시작해 보지요. 서울 태생이지요?

강: 1964년 2월 16일생 서울 금호동 출생이지요.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 아버지 고향은 전라북도 삼례, 바로 '삼례 집회'로 유명한 곳이지요. 한국전쟁 당시에는 좌익이 극성이었던 곳이었고. 일명 '전라북도의 모스크바'로 불리기도 했던.

집안 중 친가는 다 우파예요. 할아버지가 제헌국회 선거 낙선했고. 외가가 권씨인데 좌익이지요. 외가가 익산인데, 웃대에 좌우가 다 있어요. 아버지는 삼례에서 학교 선생을 하다가, 서울 학교로 전근해서 살았어요. 그때 학교 선생의 지위는 형편 없었고 살림은 항상 쪼들렸습니다. 1980년대 전두환이 교사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면서, 갑자기 살림이 나아졌죠. 교회도 한때 다녔고, 그러다 고등학교 때 악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작곡과 가려고 했어요. 차라리 자연과학 이런 게 더 좋았고. 전혀 사회과학 쪽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에 단국대 들어가 화학 전공했죠. 음악은 그냥 취미로 하면 되지, 굳이 전공 안 해도 될 듯하다고 생각했어요.

대학 가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대학 들어간 사람들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대학 가서 광주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들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체계적인 정보도 아니고 제한적인 정보였지요. 그 얘기를 듣고 친구와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알려준 선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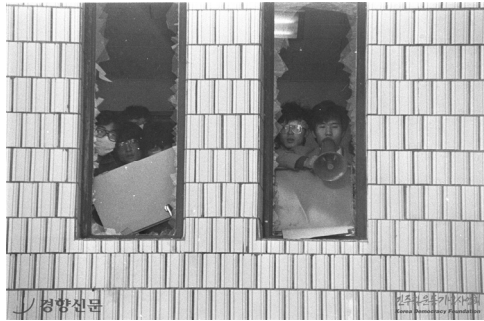
가 속칭 언더(지하 서클)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우연히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지요. 이제 세상을 뒤집어엮는 것밖에 없다, 이게 모든 개인적인 욕망에 앞서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죽일 놈의 선배가 오시더라고요. ‘네가 뭐 하고 싶다’고 했다면서 묻길래,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고 했죠. 그리하여 점점점 선을 타고 가더니, 지금까지 친구 동지로 지내는 교회 선배를 만나게 됐죠.

하여튼 그때 열심히 공부했지요. 후배들도 열심히 키우고, 학교에는 아예 들어가지 않았고. 제가 다니던 과 친구들도 제가 같은 과인지도 몰랐으니. 학교에 운동하는 학생들도 많지 않았고 …. 우리들끼리 지낸 거죠. 82학번에 대략 10명 안팎이 운동권이었죠.

운동 경력: 전노운협, 전민련, 전국연합

권: 운동 경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김기설 분신 사망 사건이 터졌을 때 강기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강: 1984년 3학년 때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1985년 학생회 집행부에 들어갔는데, 저는 주로 학간연대. 이른바 ‘fed’를 맡았습니다. 85년 5월 삼민투위원장이 되어 두 달 후 수배돼 도망다니다가 12월 소위 말하는 ‘디 치고’(테모 주동하고) 학생운동 쪽은 정리할 생각이었어요. 민정당 연수원 접거농성 들어가서 폭력, 화염병 시위 병합돼서 첫 구속 됐습니다. 징역 2년, 87년 11월 만기인데, 6월항쟁



(위) 민정당 연수원을 점거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확성기를 통해 말하는 모습

(왼쪽) 민정당 연수원에 불길이 치솟자 불을 끄는 한편 학생의 추락에 대비하는 경찰들의 모습

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일어나고 7월 8일 사면 받고 가석방됐죠.

권: 87년 7월에 나왔을 때 어땠나요?

강: 감옥에서 나와 '구속청년동지회(구청동)' 활동하면서 제적자 복학 협상을 맡았죠. 당시 구속동은 학생운동 출신 '구속청년들', 즉 87년에 감옥에서 석방된 학생들의 모임인데, 대략 100여 명 정도(예요). 서울대가 가장 많아서 50명, 그중 대다수가 법조계로 갔고(요). 그때 나중에 뉴라이트 만든 김영환, 정대화, 홍진표 등 뉴라이트 창시자들이 다 있었죠. 학내 민주화 투쟁, 학간 연대 등 사업을 했는데, 사실 다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팀 짜서 안양지역 호계동 근처에서 위장취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팀은 깨졌고, 이미 당시 현장에서 나오는 분위기였고, 민주노조가 세워지면서 학출들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던 일로 되돌아갔습니다. 카톨릭노동사목에 있던 선배가 현장 보다는 운동에 대한 생생한 감각을 가질 수 있다며 전노운협(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에서 일하길 권했어요. 그래서 1989년 카톨릭노동사목의 추천으로 일종의 파견처럼 외곽 노동단체인 전노운협에 들어갔어요.

권: 그 전에 노동 쪽에서 일하거나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 전노운협 들어가고 거기 일을 했네요.

강: 네. 나는 좀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하진 못하겠다고 싶었어요. 그때 신계륜 연대사업부장 밑에 있었는데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뭐 자네가 잘하는 게 그것이니 전민련으로 가서 일해보라' 해서 가게 됐지요. 1989년 말부터 전민련과 전노운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했죠. 같은 건물에 전민련이 1층, 전노운협이 2층, 그리고 지하에 전농, 그 옆에 정책실, 편집실이 있었고 바로 그 옆 건물에 민통련이 있었어요. 그렇게 다 한 건물에 모여 있었죠. 전민련 연대사업국에서 민중생존권쟁취위원회 간사를 했는데, 이 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주로 노동뿐 아니라 빈민 등까지 연대사업을 했어요. 전민련 특위 3개 중 하나였고, 나머지가 조국통일특위, 민주쟁취위였죠. 그 후 전민련은 다른 민중단체들과 함께 1990년 전국연합으로 확대됐죠.

여하튼 1990년부터 1991년까지 격변하는 시기에 민중대회를 여러 번 열어 잘 싸웠습니다. 농민, 노동자, 빈민, 학생, 즉 당시 불리던 약칭으로 '노농빈학'이 다 모여서 집회 시위를 했는데, 해방 후 거의 처음이었죠. 그런 분위기에서 시민운동 이런 것에는 코웃음쳤습니다. 노동의 입장은 명확했고요.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나서면서, 대회에서 전민련

간부가 발언하면 씨가 안 먹혔어요. 재야 너희는 정치나 해라. 그 말도 맞는 말이기도 했죠. 아주 짧은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권: 김기설 분신 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요?

강: 1991년 3월 대의원회 3기 준비 마무리한 후에 전민련을 나가겠다 결심하고 알렸습니다. 해서 사회국에서 총무국으로 보직 변경을 했어요. 당시 김기설은 사회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권: 그러니까, 단체를 나가려고 하는데 1991년 김기설 사건이 났네요.

강: 1991년 3월 대의원대회 끝난 후였어요. 나갈 타이밍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제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을 하자, 현장에서 긴 운동을 하자. 공부도 체계적으로 하자 마음 먹고 있었지요. 그런데 1991년 3, 4월 상황은 심상치 않았고. 4월 26일 강경대 학생 죽음, 4월 30일 전남대 박승희 분신 등이 벌어졌어요. 특히 내가 충격을 받은 건 4·30 전남대 박승희 분신이었어요. 그의 생전 기록들, 쓴 글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현자’가 하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나 이와 상관없이 세상의 이치를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하는 얘기 같았어요. 그동안 재야에 있으면서 그냥 관성처럼 일했는데, 그에 대해 깨우쳐주는 내용이었어요. 뭔가 결정타 같은 단어들 이 그의 글에 있었습니다. 여기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5·1 분신, 5·3 분신이 또 있었지요. 그리고 5·8이 있었죠. 바로 김기설의 분신 사망 사건.

대필 조작 시나리오는 김기설 사망 전에 있었다

권: 이제 김기설 사망사건과 당시 사건이 벌어졌던 맥락을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김기설 죽음은 일련의 죽음 중 하나라는 점에서 눈에 안 띄 수도 있었는데 세상을 흔들어놨어요.

강: 재야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5월 들어 계속 분신이 줄 이었고, 경찰이 5월 1일부터 이미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조직 사건 만들자, 그게 안 되면 분신 배후가 있다고 하자'. 유서 조작 시도는 있었죠. '유서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어진다'라는 판단. 꼭 유서를 빌미로 하여야 한다. 그렇게 유서 대필 조작 시나리오가 이미 5월 1일부터 나와 있었어요.

안동대 김영균 죽음에서도 조직 사건으로 엮으려던 시도가 있었고요. 김영균의 유서를 대신 썼지 하면서 선배들을 잡아가서 자백을 강요하고, 유서를 대신 써줬다라고 자백하라고요. 그들이 모두 김영균이 함께 했던 안동대 탈패 동아리였는데, 처음에는 조직 사건으로 몰아가려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유서 대필 사건으로 만들려고 경찰서에서 달아매고 패면서 자백을 강요했다고요. 하지만 끌려간 학생들이 완강히 허위 자백하길 거부하면서 조직 사건 만드는 것이 잘 안 되자, 그들을 다 집회시위법 사건으로 구속 처리하는 식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로 계속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나중에 대필 사건 유죄로 만기 복역 후 나와서 알았어요. 당시 안동대에서 분신 배후 대필자로 지목되었던 김영균의 선배 김구



김기설이 분신 후 투신해 숨진
서강대 건물
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분신 배후로 지목되어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감옥살이했던 사람인데, 그가 안동대 강연을 요청하면서, “내가 꼭 당신에게 할 말이 있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라고 말하더군요. 갔더니 300명 학생들이 모여 있고 내 강연이 끝나고, 일종의 연극, 상황극을 공연하더라고요. 김영균 분신 전의 과정, 그 후에 선배 후배 다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분신 배후라는 자백 강요당하고 그러다 서로 누가 고자질했다고 의심하면서 내부가 뿔뿔이 흩어졌던 과거

가 있었고,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러간 거죠. 그날, 내가 초대받아 간 그 자리가 일종의 화해하는 자리였더라구요. 이미 떠난 아이를 불러내 놓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당했었다는 것을 연극으로 풀어가는 것이었고, 그게 바로 내게 보여주고 싶다고 한 것이었어요.

권: 그럼 김기설 사건은 왜 있었을까요? 아니 왜 이 사건에서는 죽음과 유서 대필 조작 사건으로 만드는 일이 가능하고 성공한 것일까요? 반대로 안동대에서 그 시도는 왜 실패했을까요?

강: 거기서는 어설픈데 했으니까, 그냥 패는 것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서울은 그렇게 두들겨 패는 방식이 아니었죠. 서울에선 여론전부터 한 것

이지요. 벼르고 있다가 서울에선 잘 해낸 것이지요. 그리고 김기설이 재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란 점이 중요했지요.

권: 전민련에서 김기설과 일할 때 어땠나요? 정말 두 사람은 친했나요?

강: 그게 경찰이 원하는 답이었습시다. 친하냐고. 친했다고, 수없이 물었고, 그렇게 몰아갔죠. 경찰이 김기설과 내가 친했다고 자꾸 말하는데, 그 근거가 내가 1990년 말 그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줬다는 것이예요. 하지만 난 정말 안 친했어요. (웃음) 여자친구를 소개할 정도로 친밀하지 않았는데, 하도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니, 좀 안타깝잖아요. 해서 그냥 여자를 소개만 해줬고, 그 뒤 그들이 연인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건에서 저를 유죄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그 사람은 내가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라, 당시 내 애인(현 부인)의 아주 친한 친구였고 가끔 함께 보기도 한 사이였어요. 내 애인의 친구였던 그에게 “한번 만나 볼래”라고 가볍게 권했더니, “선뜻 좋아요”라고 해서 1990년 11월쯤 소개팅을 주선했지요. 사실 재야단체에서 일한다면 뻔히 알 수 있고, 본인은 전혀 운동권도 아닌 사람인데도 좋다고 하길래, 속으로 이런 미친 싶기도 했지만. 게다가 집안도 보수적이었어요. 집안이 다 경찰이었고, 집안에 작은 아버지 등이 경찰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싶기도 하고.

권: 김기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안 친했다는 점 말고요.

강: 사실은 나와 안 맞았어요. 김기설은 내성적이었고, 아주 성실했어요. 그냥 과묵 성실한 사람. 그런데 내가 가진 편견이지 싶지만, 이렇게 과묵 성실한 사람이 세상을 망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단체들

에서 가장 흔했던 ‘학출(대학 학생운동권 출신)’이 아니었죠. 고졸인데 성남 민청련에서 활동하였고, 근데 거기서 본인은 한양대 중퇴했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고(요). 당시 성남 민청련 사람들은 한양대 중퇴라고 알고 있었고, 성남 민청련 추천으로 실무자가 부족했던 전민련에 오게 되었죠.

당시는 노출(노동자출신)도 단체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때였어요. 활동가 중에 노출도 없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학출, 출신 학교를 말하지 않는 분위기였죠. 근데 그는 굳이 자신의 고졸 학력을 숨기고 한양대 중퇴라고 말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가 분신 사망한 후에야 한양대 중퇴라는 것도,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도 알게 됐지만.

권: 김기설에 대해서. 이 사람의 신분, 정체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는 생각들은 없었나요?

강: 거의 그런 의심은 안 했습니다. 여하튼 그는 (내가 싫어하는) 청소도 잘하고 아주 성실했어요. 근데 말 한마디 없는 사람이 술 마시면 말이 많아졌어요. 내가 딱 두 번 그와 함께 여러 명이 하는 술자리를 가졌는데, 술자리에서 말이 많아지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재미가 없었죠.

권: 김기설에 대한 전민련 내부의 평가는 어땠어요?

강: 그냥 조용한 애. 똑똑하다는 아니었고, 뭐든 하라는 일은 다 잘했어요. 근데 어디서나 잘 쫓아다니고 잘 따라다니고 말없이 선배들 뒤를 봐줬죠. 당시 전민련 인권위원장이었던 서준식 선배가 데리고 다녔어요. 말을 잘 듣고 군소리 없이 하니까. 그리고 수배되어 거지 차림을 하고

다니던 전국연합 한상렬 수배 때는 뒷수발을 다 맡았어요.

권: 김기설의 사망 사건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요?

강: 과정이 좀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 하려는 얘기를 하나도 몰랐고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지요. 경찰들이 밝히면서 그의 죽음 과정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떻게 죽음을 준비했는지 등에 대해서요. 김기설은 5월 5일 송의여전 학생들에게 사회과학 세미나를 지도해 주고 있었고, 뒤풀이에서 갑자기 죽겠다고 처음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얘기에요. 당시 그 말을 들은 송의여전 학생 3명이 고민을 하다가, 4월부터 분신정국 상황에서 당시 연세대학교에 상황실이 있었고 전민련 사람들이 다 와 있었는데, 거기에 와서, 우리가 김기설과 세미나하는 학생들인데 세미나에서 죽겠다는 얘기를 하더라, 웬지 느낌 안 좋으니 그를 좀 잡아주시라고 요청하고, 그가 썼던 메모들도 전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나섰고, 청년단체에 활동하던 임근재가 5월 7일 그의 자취방 앞에서 귀가 중인 그를 발견했어요. 술이나 한잔 하자고 대학로에 데리고 가서, 전민련 선배들을 한둘 불러내 서너 명이 술도 마시고 일부러 즐겁게 얘기를 나눴다고 해요. 근데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즐거워하더라요. 임근재가 그의 자취방에서 발견한, 쓰다만 유서 초안을 보여주며 이리저 마라 하며 크게 혼내자, 김기설이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그런 생각 하지 않겠다”고 답하고 스스로 유서를 찢었다고 해요. 얘기가 새벽 두세 시 경에 끝났고, 김기설이 “잠시 전화하고 올게요” 하고 전화 부스로 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 사라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고 주변을 뒤지며 찾았으나 못 찾았죠. 그리고 혹시 상황실이 있는 연세대에서 자살할까 생각하고 다 거기 모여 있었는데, 5월 8일 아침 김기철이 서강대 본관 옥상에 나타나 투신 자살했죠. 옷옷과 신발을 옆에 둔 채. 그리고 유서가 옆에 있었는데, 읽어본 임근재의 증언에 따르면 앞서 찢어버린 유서 초안과 동일한 내용이었다고 해요. 같은 유서 내용을 다시 썼다고 추측할 수 있었죠. 검찰이 배후 수사한다고 검경 합동으로 임근재를 찾아나서니까, 그는 바로 도주했고 바로 수배됐죠. 내가 1심 유죄 확정된 후 그도 나타나고, 수배도 풀리고 했습니다. 잘 도망 갔어요. 잡히면 작살나니깐. 그런데 이상하다 싶긴 했어요. 그때 수배령 때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온갖 주변 사람들 그렇게 수배령 때려서 다 도주하게 만들고, 유리한 증언, 아니 정확한 증언할 사람들은 모두 '잠수'해 버리고, 내가 유서 대필로 1심 유죄로 확정되자 수배령 그냥 다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배령을 대대적으로 때린 목적은 강기훈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증인들을 모두 입을 막고, 모두 재판정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지요. 압수수색의 목적도 저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없애는 것이었구요. 심지어 내 고교에도 가서, 옛날 제 시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뒤져가서 가져갔어요. 그 정도로 나를 탈탈 털었어요. 근데 그렇게 확보한 제 필적들은 재판정에 한 번도 제출되지 않았어요.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도, 그 시험지를 가져간 사실도 1심 후 고교 선생에게 뒤늦게 들어 알게 됐습니다. “학교 생김 이래 그렇게 많은 경찰 수사관이 온 건 처음이다, 그런데 내가 몇 개 감추었다. 네가 진짜 못 본 시험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걸 감춰지”라고 하시더군요.

1991년 5월투쟁 전야, 전환점

권: 1991년 5월 8일 이전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5월투쟁 전야잖아요. 비합법 정치조직들은 다 조직 사건으로 깨지고 있었고, 노동자 민중투쟁은 격화되고, 노태우 정권에 대해서는 군부독재 2기 파쇼 타도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 그 정도였으면 정권이 넘어졌을 거라고 봐요. 이 사건으로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 계속 갔다면요. 그 정도로 전면적인 위기였으니. 노동자 민중대회라는, 그런 유형의 집회가 이전에 없었어요.

권: 전면적인 자생적인 계급투쟁의 전선이 남한 사회에 형성되었고, 87년까지 단련된 대중투쟁으로 싸울 줄 알게 되었고, 좌파와 노동계급의 결합도 시작되었고. 하지만 문익환 목사가 북한 방문하면서 이런 계급투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뒤집는 빌미가 되었지요. 터져 나오는 계급투쟁과 운동을 때려잡는 것이 목표였고,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펼치는 두 가지 방식이 택해졌죠. 그러나 사람들이 물러서지 않고 계속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아니면 뒤집어졌을 것이라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직선제가 되고 첫 선거 결과는 이렇지만, 중산층 중심으로 두고 보자는 대중적인 분위기로 이미 돌아섰고, 공안 정국을 조성하였지만, 민주주의로 집권한 정권이라고 인정했고, 김대중 등 정

당 세력은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었고요. 재야 등 중심으로 김대중 민주당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하자라는 입장과, 그게 아니라 이견 유사 파쇼 정권일 뿐이라고 보는 입장이 첨예하게 분화되었지요. 변혁, 좌파 운동에 대해선 조직사건으로 궤멸시키고 대중적으로 터져 나오는 계급투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가장 약한 고리가 당시의 재야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민련, 전국연합, 그리고 그것과 구분되지만 걸쳐 있는 것이 전국노운협이었고. 전국연합에서 국민연합으로 가는 과정은 재야가 자신의 역할을 그런 방식으로 소멸시켜 가는 과정이었죠. 더욱 확실하게, 더 밀어붙였다면, 말씀대로 뒤집어질 수 있었겠지만, 화이트칼라 중산층 등은 이미 돌아서 버렸고. 내부의 분열, 동요, 전향 등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것이 제가 말하는 '전환점'이라는 의미예요.

강: 그들이 돌아서게 된 것에서 이 사건이 결정적이었죠. 그리고 정원식 계란 투척 사건이 그 마무리를 한 셈이죠.

권: 네. 그 사건이 결정적으로 정세의 물길을 바꾸는 계기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민주화의 효과가 그런 식으로 이미 나타난 면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노동자투쟁이 정치적 민주주의 이상의 요구를 담아 터져 나오자 중산층은 경계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민족주의 세력은 목표가 자주민주정부이니까 김대중부터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었고, 통일 운동으로 대거 이미 이동했고.

그러니까 이런 정세 속에서 개인적 분신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폭제가 되겠다는, 좌절감과 분노에서 나온

분신 행동, 스스로 이한열이, 박종철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나왔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죽음이 이어지는데, 박종철 고문치사 때처럼 확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민련 등은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야 했어요. 김기설 죽음과 유서 대필 조작 사건으로 정권이 사태를 어떻게 몰아가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정세 인식이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강: 근데 이미 당시 정세는 전민련 주도로 가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대중 집회를 주도하던 양반들이 대책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4월 발족한 공안통치 분쇄 대책위가 전교조 이수호 등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죠. 특히 전민련은 그냥 참관 단체였어요. ‘너네는 어차피 다 당으로 갈 사람들’이라고 여겨졌고, 실제로 가버리는 상황이었기도 했고요. 전민련의 우리는 실무적인 일만 하고 있었어요. 이미 재야는 주변화되고 있었고, 전교조 쪽으로 이수호 등이 와 있었고, 주로 노동 쪽 사람들이었어요.

진실은 판결문으로 확정된다

권: 갑자기 김기설 분신 사망 사건이 강기훈의 유서 대필 사건으로 뒤바뀌었잖아요, 그 과정은 어땠어요?

강: 여하튼 김기설이 죽고 검찰수사가 그렇게 시작되자 모두 처음에는 ‘유서 대필이라니, 웃기고 있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기설이 글을 핑장히 잘 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자기가 쓰고 죽지’, ‘그런



(왼쪽)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는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위) 강기훈의 석방을 축하하며 이수호 전교조 부위원장이
약수를 나누는 모습

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데 뭘 유서를 대필해 주겠나. '이러다 흐지부지된다'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설마 그 유서 대필자가 나로 지목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논리적인 합당함이 있어야 믿지요.

하지만 어느날 언론이 단정적인 보도를 내놓자, 사람들이 차차 믿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살면서 두 번 뒤집어졌어요. 첫번째는 1982년에 광주학살을 알면서, 내게는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내가 알던 세계가 이런 세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두 번째는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아,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맞다고 하면 그게 거짓인데도 다들 믿는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저걸 믿고 앉았

구나. 그리고 그것을 판결문으로 쓰는구나. 검찰은 목적이 있다고 치더라도, 판사들은 판결문으로 진실을 만드는구나. 진실은 판결문으로 확정되는구나’.

권: 어떻게, 언제 강기훈이 김기설 분신 사건에 등장하게 되는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강기훈은 김기설 분신 사건의 배후, 김기설의 유서 대필자로 지목되게 되었는가요?

강: 언론보도에서예요. 저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지목되었어요. 바로 강경대 장례식 때 경찰이 나를 지목했습니다. 시간을 딱 맞춘 것이지요. 그때 강경대 장례식 노제하던 중이었는데 경찰에 의해 막혔고 다시 돌아갔지요.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때 느닷없이 국민일보가 특종보도를 해요. 김기설 유서는 본인이 쓴 게 아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자 다른 신문들도 난리가 났죠. 검찰에 따르면 “대필자는 바로 전민련에 같이 근무하는 K 모씨”라고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전민련에 K 모 씨는 저 혼자뿐이더라고요. 경찰은 이미 전민련에 있는 K 모 씨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전민련에 있는 K 모 씨라는 말로 이미 사람도 특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필적 감정도 아직 하지 않았던 상황인데요. 그때 나는 신촌 연대 앞에 있었는데, 동료였던 박홍순이 사색이 되어 오더니,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나는 처음엔 웃었어요, “이거 웃긴다”라고 말했어요. 웃음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강: 그때 제가 첫 징역 갔을 때 썼던 자술서를 구해 가지고 국과수가 유서

와 대조해 필적 감정을 한 거더라고요. 당시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이 ‘이 두 가지 필적은 같은 것으로 판명한다, 그러니까 유서는 대필 조작 이’라고 감정결과를 발표했고 조간신문부터 대문짝만 하게 그 내용이 나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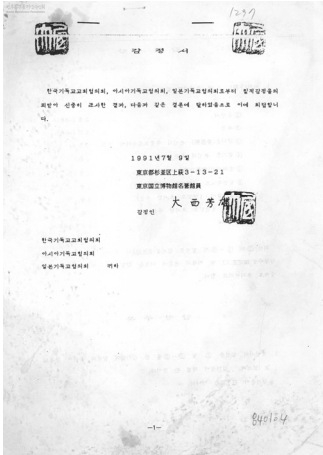
권: 사실 국과수 감정이 유일한 증거였잖아요. 그리고 그를 필적 감정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었잖아요.

강: 필적 감정 업종이 폐쇄적인 카르텔이에요. 감정사가 몇 명 되지 않으니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자기들끼리 폐쇄적인 카르텔이었어요. 그래도 한겨레신문 등 여러 차례 따로 감정을 의뢰했죠. 그걸 검찰은 다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1심 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주선해서 일본의 감정사에게 의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자면 필적감정이론을 정립한 사람이었는데, 법정에서 증인으로 와서 개박살났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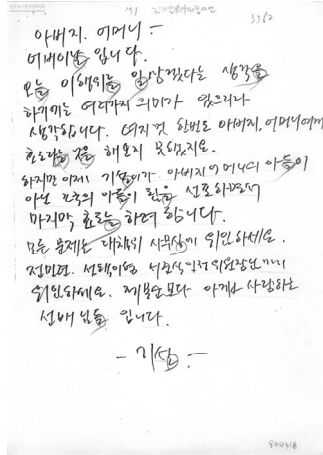
이 사람이 1심 법정에서 나와서 증언하고, 재일 교포가 배석하여 통역을 했는데, 사실 이 통역도 한국어를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법정에서 예시로 쓴 한글 ‘지자체’를 ‘자사체’라고 읽는 바람에, 작살이 났어요. 신뢰도가 확 떨어졌지요. 감정사라는 사람이 자모 획수 안 맞는 글자로 오독한 셈이 되었으니. 그 감정 결과는 결국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의 주체, 행위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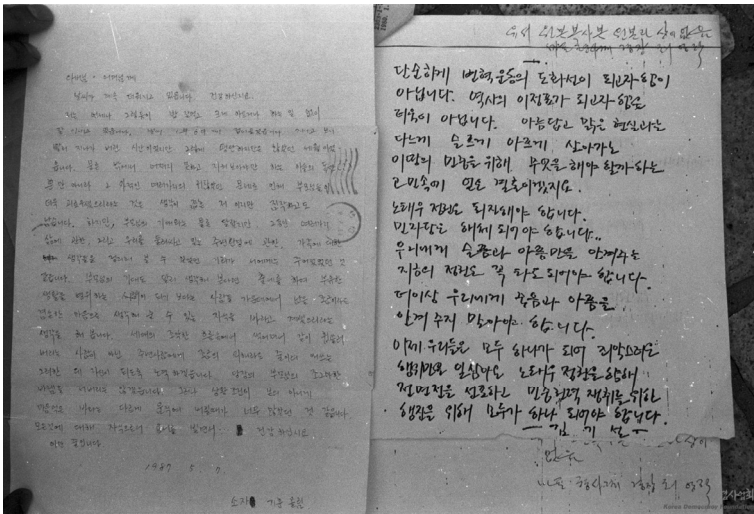
권: 당시 검찰과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 김기철의 분신 사망 이후 검찰에 의해서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유서 대필 필적 감정서



김기설 필적 복사본



강기훈의 필적을 검증하기 위해 입수한 자료 일체

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 근데 검찰에 대해서 얘기가 다 나쁘지 않았어요. 검찰에 대한 여러 소스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당시 수석검사 신상규가 유서 대필 사건 조작의 총책이었습니다. 검찰들끼리 '수석검사 신상규'라고 칭하기도 하고. 사실 그런 자리는 없는데 그렇게 불렀어요. 부장검사 제치고 지가 모든 일을 다 했어요. 당시 부장검사는 강신욱인데 이후에 대법관까지 올랐던 인물이지요. 신상규는 자기 학번들 뒷담화하길 즐겨했어요. 바로 서울대 68학번들, 서준식, 채만수, 최규성, 이인재 다 동기였 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모두 이 사람을 좋게 말하는 거예요. 다들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서울 민통련에 가끔 오곤 했고 나중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최규성 선배는 그때 회사 대표였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장난도 잘 치고 사근사근하고 순진하고 착하다고 평하면서, 나에게 카폰으로 신상규 검사와 대화하는 내용을 들려줬어요. 어떤 놈인지 들어보라고요. 대화 내용 중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수사해야지”라고 하니. “그건 안 되지 우리 쪽을 이해해 줘야지” 하고 말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무대보가 아니구나’라는 인상을 줬죠.

그리고 다른 소스로는 선배가 접촉했던 안기부 애들은 말하길, ‘검찰 재네들 저러다 큰 일난다’라고. ‘아 이리다 재네들이 포기하겠구나’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마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권: 1991년 정국이 복잡적이었습니다. 노태우 정권에 대해 독재 연장, 파

쇼 타도라고 하면서도 언론통폐합 폐기하고 한겨레신문도 생기고 해직 교수 복직도 시켜주고 하니까, 사실은 민주화 이후의 공간에 대한 생각들, 정치체제에 대한 생각들이 심하게 동요했던 시간이었지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전처럼 엉망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식으로 만들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래서 대비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강: 네. 1987년 이후 민주화 공간 속에서, 정치체제에 대한 불철저함을 인정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이전 수사 관행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과연 철저하게 대응한다고 달랠까요. 사실 철저했다 하더라도 결론은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지금 생각이예요. 철저하게 대응하면 뭐가 달랠까요? 어차피 저들 목적은 하나였어요, 나를 범인으로 만든다는 것.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짓들도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유리한 증언, 내 무죄를 증명할 이들은 모두 겁주고 수배 때리고 사업을 못하게 만들고 입 막고 …. 사람들 망가지고 생활이 다 박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모두 수배 다 풀어줬죠. 하지만 그런 기법들이 동원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딱 하나 걸린 게 있어요. 김기설이 근무하던 군대에 가서 증거 하나를 찾아서 ‘이거 별거 없네요’ 하면서 검사가 호주머니에 집어 넣었다가 걸린 거잖아요. 그게 유일하게 드러난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검찰이 군대에 가서 김기설의 수첩 하나

를 주웠는데, 거기에 그의 필적 증거가 수도룩했던 거죠. 그게 자신들에게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심이 끝날 때까지 제출하지 않았어요.

당시 군법무관 이찬진이었는데, “내가 이게 김기설 수첩이라고 수사 잘 해달라며 검사에게 분명히 건네줬는데도, 왜 그 증거 제출하고 공개하지 않나” 회견도 했어요. 그러자 검찰이, 남기춘 검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남기춘 검사는 그 수첩이 쓸모없을 듯해서 내놓지 않았다고 말하고, 근데 이미 결심은 이미 끝났고 … 이걸 가지고 심리하자고 했더니, 판사가 안 한다고 했죠. 나중에 이게 2심에서 증거가 됐죠.

권: 전두환 체제에선 공권력에 어떤 믿음도 갖지 않았고, 그렇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인데요.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법 절차를 진행하고 언론을 동원하고, 여론전을 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새로운 방식과 방관자들, 구경꾼들을 앞에 두고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만든 것도 그 이유잖아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 강기훈 하나 감옥 보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때 국면을 뒤집어 놓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운동권이 이런 자들이다 이렇게 부도덕한 짓을 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를 증명해 주는 과정을 철저히 보여주는 게 목표였잖아요. 새로운 세상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한 거죠.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것으로 수사기법을 다양하게 해서 말이지요.

강: 참으로 훌륭한 검사들입니다. 이것이 교과서가 돼서 수없이 똑같은 짓

들을 하잖아요. 똑같이 비슷한 것들어요. 그중에선 성공한 것들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 최근 검찰에서 어설픈게 배운 자들이 제대로 못해서 시끄럽던데, 이런 선배들한테 잘 배웠어야지요.

김기설 유서 대필 조작 사건에 대한 재야 운동권의 태도에 대하여

권: 이 사건 조작 건에 대하여 전민련을 비롯한 운동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이 그렇게 몰아갈 것은 분명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침묵하고 눈감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과연 눈을 감았던건지, 혹시 그렇게 믿었던 건 아닌지?

강: 선의로 해석하면 그렇게 믿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강기훈 하나가 그렇게 했다고. 근데 다들 관심이 딴 데 가 있었거든요. 감옥에 간 사람들을 빼고, 다들 관심은 정치에 가 있었어요. 다 출마하실 분들이었고. 그후 꽤 많이 나갔었지요.

권: 그래서 관심이 없었다? 그게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시끄러운 사건이었고, 자기들에게도 관계가 있고 정치를 하더라도 큰 영향을 주는 일이었는데요?

강: 다 잊고 싶어했지요. 몇 명 선배들은 팔짝 뛰고 미칠려고 했지만, 몇 명 일 뿐이었고, 대부분은 그냥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해자로 만들어놓고 싶었던 것이지요. 언젠가는 구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 억울한 것 안다, 언젠가는 바뀐다,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라면서.

권: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서, 유서 대필 조작 사건으로 공안화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싸웠어야 하지요. 그때가 사람들이 줄줄이 분신하던 5월 투쟁이잖아요.

강: 근데 그때 관심은 딴 데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그렇다 싶어요.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길, 거친 파도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상황에서 선배들이 사무실에 앉아 바둑만 두고 있더라”는. “기훈이 저 놈은 들어가 있고 똥줄이 타서, 이것도 저것도 해야 하고 할 일도 많은데 …” 말이지요.

권: 민주화 이후 선거 정치에 올인하면서,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건데, 그건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닌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1991년 5월 다른 투쟁들까지도 공안 정국에 연결하면서, 운동권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프레임하고 국민들이 믿게 됐을 때 민주화 세력 전체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되고 입지가 약화될 텐데요.

강: 그걸 알지만, 더 이상 할게 없다는 거지요.

권: 할게 없다 ….

강: 서준식 위원장이 그 꼴을 보고 복장이 터졌다는 것을, 아주 나중에 들었지요. 사실은 선배들 다 아무 것도 안 하고 싶어했어요. 그 선배가 유일하게 계속했죠. 서 선배가 주위 환기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조금이라도 주위를 환기시키자, 여론전도 좀 하자’면서, ‘국회에서 내가 의원 모임에서 발언할 수 있게 딱 5분만 줘라’라고 했는데 그 자리를 안 줘(요). 1992년도쯤 국회의원들 꽤 많았거든요. 민주당 애들한테 요청했는데, 안 됐다고 해요. 그렇게 해준다고 하다가 다들 ‘밥 먹으러 갑시

다’ 하고 우르를 가버리더라고 … . 서 선배, 그 이후로 민주당하고 척을 졌죠. 그 뒤로는 국회의원을 부를 땐 뒤에 ‘새끼’를 반드시 붙입니다.

권: 1991년 투쟁은, 아주 다양한 갈래들이 모여서 5월로 집중되었어요. 근데 그것들은 모두 이질적이었어요, 서로 하나의 대오가 되기엔. 87년 호헌 철폐, 박종철 고문 치사로 하나가 되어 항거하자라고 할 때와는 많이 달라진 것이지요.

강: 네 확실히 1991년에는 더 다양했어요. 집단들이요. 2016년의 촛불들 때보다 다양했어요. 생각도 다 달랐고. 재야 단체들에게는 발등 위에 불인데도 불구하고, 운동권 선배들은 선거 정치에서 다른 것을 만들 수 있으니 지금은 피해 가자라는 입장이었어요.

권: 반면에 국가는 민주화 이행 이후 집회·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마지막 물리력을 총력전으로 쓰고 있었고, 노동쪽은 전노협이 결성된 후 한진중공업 박창수 위원장 등이 대기업연대회의를 만드는 마지막 시도를 통해서 전노협으로 합류하려는 차에 대기업연대회의 수련회를 급습, 일망타진하여 이 흐름을 컷(cut)시킨 것이죠. 사실 모든 곳들에서 그렇게 컷(cut)을 시키면서, 각개 약진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들에게 터진 일들에 급급하던 식이었어요. 그렇게 1991년에 모든 일들이 착착 이뤄지고 있었어요.

강: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감옥에서 ‘아 우리가 이걸 몰랐다’ 하며 함께 무릎을 탁 쳤죠. 명동에 같이 다들 들어가니까,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다같이 쓸어버리자’, 그렇게 된 것이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나온 다음에 하루인가 이틀 뒤에 명동성당에서 농성

자들 다 잡혀 들어갔어요.

강: 의외로 얘기하기가 힘드네요. 옛날 얘기를 하는게. (뵈이 힘든가요?)
대충 넘어가고 싶어서. 설명하고 싶지 않고 자꾸 넘어가고 싶고. 상황
들이 자꾸 잊히고 기억나는데, 넘어서고 싶고 힘드네요. 수십 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두툼한 감성' 때문에.

검찰이 내세운 증인과 유일한 증거, 국과수 허위 필적감정

권: 국과수 필적감정 말고 당시 결정적인 증언을 했다고 하는 김기설의 애
인 홍성은은 어떤 사람인가요?

강: 그랬다고 검찰에서 주장을 했죠. 애인 홍성은이 유서 대필에 대한 결정
적인 증언을 했다고. 5월 7일, 분신 전날 김기설을 만났는데, 난 죽을
거니 여기 수첩에 적혀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라면서 수첩을 찢어줬
다고 해요. 펜으로 일일이 체크를 해주면서. 그리고 대책위가 연 기자
회견에 나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가 스스로 죽겠다고 말했고, 배후가
있을 리가 없다면서. 그런데 그 바람에, 검찰이 아 김기설에게 애인이
있구나 알게 됐지요. 그리고 검찰이 며칠 후 그를 채가서 그렇게 (증언
하도록) 만들었지요.

검찰이 작은 아버지 협조를 받아 홍성은을 데리고 가서 밤새 얘기를
했어요. 자신들의 말을 믿게 만들었지요. 강기훈이 김기설을 소개해
줬는데, 그가 바로 김기설의 죽음의 배후라고 말하고 유서 대필을 했
다는 식으로 검찰이 말하니, 배신감에 치를 떨며 증언했던 것이죠. 그

것이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 이게 도무지 아니 거든. 그래서 그가 법정에서 중요한 진술 몇 개 반복해요. 특히 “강기훈이 김기설의 필체를 흉내내며 써 보여줬다”고 했던 말, 이것이 가장 불리한 증언이고 검찰이 제시한 증언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이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자기도 당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검찰 조사 후 아예 나타나지 않았고 언론 취재 요청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어요. 완전 연락 두절 상태가 됐어요. 당시 기자들이 만나려 무척 애썼으나 실패했고, 집 앞에 장사진을 친 수사관들이 접근을 아예 막았고, 실종됐다는 말도 있었어요.

권: 그 사람은 지금 잘 사나요?

강: 학교 임시 교사였는데, 임용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내가 감옥 갔다와서 결혼하고 아기가 생긴 후에 우리집에 놀러 왔어요. 그런 점에서 오묘한 정신 세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때 미안했다 한 마디는 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다시 만난 나에게 형형 호칭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일종의 살의를 느꼈다고 나 할까. 그 건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했어요.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판결문에 유죄 증거로 유일하게 제시된 것이 국과수 필적감정입니다. 그게 유일한 증거예요. 그 외에는 당시 강기훈의 수상쩍은 언행들에 대한 온갖 정황적인 기술들. 공소장이 소설같이 쓰여져 있어요. 결국 감정서가 유일 증거였던 거죠.

권: “강기훈의 수상쩍은 언행들”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강: 1991년 5월 8일 김기설 사망부터 6월 23일 내가 도피해 있던 명동성당에서 나와 자진출두할 때까지 수상쩍은 언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명동성당에 들어갔고, 유서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필적들을 계속 조작해서 남겼고’ 등. 아니, 당연히 내가 쓴 것이니 내 필적들인데, 그것을 도처에 조작의 증거들을 남겼다고 해석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무고하다는 듯이 언론과 국민 앞에서 거짓 말했다’고요.

그리고 이 자의 사상 전력을 보건대, 사노맹도 만나고 여러 단체들을 만났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요. 그때 제 자료들을 집 다락에 뒀는데, 그때 쳐들어와서 내 모든 것들이 털렸어요. 그 봉투 중에 ‘혁명노동자계급투쟁동맹’ 문건이 있었는데, 내가 그 조직원이었다고 검찰은 주장했죠. 근데 난 거기 조직원이 아니었거든요.

자진출두한 후에 검찰이 계속 그렇게 몰아갔어요. 1심 재판 공판 2주일을 남기고 치안본부에서 교도소로 찾아와서 밤샘 ‘혁명노맹’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유서대필 건뿐 아니라 국가보안법도 붙이려고 말이죠. 결국 치안본부 조사가 재판 전날에야 끝났습니다. 1주일째 매일 방문 밤샘 조사로 내 몸은 물먹은 솜 같았고 정신도 힘들었어요. 내가 방어진 행사도 하지 못하게 철저히 끝까지 몰아붙였던 것이죠. 시간이 없어 모두 진술도 재판 전날에 볼펜을 빌려서 간단히 썼어요.

그리고 마치 일제 때 ‘살부계’, 즉 아버지를 죽이려는 계처럼, 그런 정도의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인격으로 그려내려고 했어요. 같이 일하던 후배를 유서 대필해서 죽게 만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인격 살인이었습니다. 검찰이 소설을 썼죠. 그리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판결문에 다 들어가 있죠.

권: 재판 과정은 어땠나요?

강: 재판은 1주 2번 열렸습니다. 증언, 증거도 많아 재판은 6개월 딱 채워 진행되었지요. 1992년 12월 1심 판결이 났고,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2심도 똑같았고 대법원 판결도 달라지지 않았고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8월 17일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사실은 만기 이틀전인 8·15 특사 때 이름이 포함돼 나갈까 조마조마했었죠. 기껏 이삼 일 남아서 특사에 이름 오르면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지요. 근데 계속 특사 명단에 내 이름이 올랐고, 검찰은 죄를 누우치지 않고 검찰 조작이라고 여전히 주장한다며, 강기훈 가석방은 안 된다고 주장해서 결국 다행히 포함되지 않아서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렇게 당시 검사들이 훌륭하고 업무에 뛰어났어요. 요즘 검찰은 그에 비해 형편없는데 말이지요. 요즘 검찰들이 만든 작품들은 형편없는데 이 작품은 정말로 세계사에 남을 만한 아주 대단한 작품이죠.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협잡, 협박, 그리고 보직 변경까지 하면서 2심까지 내 사건 담당 검사들을 형사부로 다 옮겨줘서 끝까지 마무리하게 했어요. 물론 중간에 진상 규명하려는 시도가 있긴 했습니다. 증거부터 잡아라 그러다 기자도 수배되고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 직업 잃은 사람들, 폐인된 사람들, 삶의 터전도 서울에서 제주도로 도

망치듯 옮긴 사람들. 그냥 아는 관계일 뿐인 사람들도 있죠. 그들을 미행하고 따라붙고 집에 쳐들어가고. 그러다 운동을 하지 않았던 친구의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쓰러졌어요, 나쁜 아니라 자신의 아들까지 어찌 되는 줄 알고요. 그러다가 지병을 얻어 뇌일혈로 쓰러졌어요. 이 얘기도 사실 20년 후에야 들었습니다.

3. 1991년 이후의 삶: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의 길

권: 지금부터 1991년 이후의 진상 규명 과정과 1991년의 의미 등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1991년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 그때가 1991년이고, 다들 선거민주주의로 잘 편입하자는 분위기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지요. 바로 그 분위기가 바로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채 의식은 내게도 있어요. ‘적어도 그 건 되돌려 놔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권: 왜 그걸 본인의 부채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강: 어쨌든 간에 저도 살아야겠고, 나 혼자라면 그냥 한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이제 먹고 살아야겠고, 그래서 ‘그냥 회사 생활이나 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출소하고 나와서 몇 년 정도 나와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지요.

권: 출소 후에 어떻게 살았나요?

강: 몇 년은 회사 다니고 평범하게 일상을 보냈어요. 잠시 활동했던 인권운동사랑방도 그만두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권: 직장 생활은 몇 년 하셨지요?

강: 출소 후 1년 인권운동사랑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직장생활을 했죠. 2011년 간암 발병 후 2012년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 하니, 힘들었습니다. 단 한 해도 잊게 해주지 않았어요. 해마다 무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의 주모자들, 담당 검사들이 어디서 무슨 활동을 한다더라는 소식, 대법관이니 어떤 자리에 앉았다라는 소식.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대법관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식의 질문들. 그리고 1991년 상황은? 이렇게 끊임없이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1991년 그 사건을 나에게 리마인드(환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잊게 해주지 않았죠.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1991년 김기설 사건을 한 해도 잊어버릴 수 없는 저는, 그 일이 여전히 현재예요.

권: 김기설 분신 사망과 유서 대필 조작 사건에 대한 취재 보도 등도 심심찮게 있었지요.

강: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열흘 이상 나를 찍어 갔어요. 1990년대 중후반 방송이었는데, 그 이후 회사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내가 영업사원이었는데, 영업처 어떤 사장은 언저리 “이제 기자들 안 오지”라고 묻죠. 회사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솔직한

건 좀 나운데 …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고 뒤로 탄 말들을 합니다. 다 들리죠. 클라이언트가, “알고 보니 바로 그때 그분이네 … ” 술 마시다 특 말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유서는 왜 썼어요?”라고. 내가 유서 대필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면서, 그리고 나도 이해할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아직도 잊어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였는데, 놀이터에서 데리고 놀고 있었어요. 잠시 실업 상태였을 때였죠. 저쪽 아줌마들이 소곤소곤하는데, 소리가 들려요. “그 사람 아니야. 맞네. 이 동네 사네. 애들이 어느 애들이야. 재가 아이인가.” 그렇게 관심 없는 척 관심을 보이면서 뒤에서 수근거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김기설 유서대필 조작사건 편은 훌륭한 다큐멘터리이고 잘 만들었다라고 하더군요, 나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하지만 난 그 방송 안 봤어요. 사실 나는 내가 나오는 어떤 보도도 영상도 지금까지 보지 않았습시다.

진상 규명의 긴 과정

권: 1991년 이후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죠.

강: 나는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인 것 같아요. 법률적 절차를 중시합니다. 만약 내가 진보주의자라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재심신청을 했겠어요.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자고 매달렸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을,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다른 방법도 생각했겠지요.

2014년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죄는 받았지만, 처벌받지 않은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아직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법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대부분을 여기에 매달려 살아왔어요.

솔직히 1심 판결 나올 때까지도 끝까지 유죄로 판결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1심에서 검찰이 내세운 증거는 모두 깨졌거든요. 그들이 감추고 조작하려고 했으나 다 깨졌습니다. 하지만 나를 변호하던 변호사들은 유죄 판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더군요. 판사들 태도를 보면 안다고요.

지옥 같았습니다. 처참했습니다. 내게 함께 적용된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남의 유서를 대신 쓰고 죽게 만들었다는 유서 대필 건은 무죄가 나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바깥 소식을 전혀 몰랐어요. 감옥 사방 안에도 감시자가 있었고, 내가 있던 복도에도 교도관을 따로 배치했지요. 이 사건은 판사까지 공모한 조작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 이후로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하나도 듣지 않기로 결심했지요.

1992년 항소심부터 재판정을 굉장히 냉소적으로 대했습니다. 어차피 안 된다. 이 게임은 끝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공판부터 알겠더라구요. 모든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되더군요. 당시 임대화 판사는 단

순한 보수를 뛰어넘는 악질이었습니다. 배석판사가 부구육이었는데, 배석판사라는 사람이 연판장을 돌리기까지 했어요. 그때 여론은 강기훈은 유서 대필에 관해서는 무죄 아닌가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특히 결정적으로는, 검찰이 내세운 유일한 증거였던 국과수의 필적감정을 했던 김형명이 그때 뇌물죄로 구속됐습니다. 김기설의 군대 수첩 등 다른 필적 증거 등이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배석판사였던 부구육이 법원 판사들에게 연판장 돌렸습니다. ‘당신들은 몰라. 변호사들도 몰라. 강기훈은 움직일 수 없는 범인이고, 후배를 배후 조종해서 분신 사망케 하고 유서를 대필한 악마다. 선량한 기독교인을 속이는 악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권: 진상 규명과 재판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지요.

강: 검찰청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고 진실과화해위원회로 기록을 넘겼습니다. 당시 진화위는 조사권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시 필적 감정을 했고 아니다라는 판정이 또 나왔고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재심 요청을 해야 하는 주체인데도 안 해서 우리가 다시 재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결국 고법이 재심 결정을 내린 것이 2009년이었죠. 당시 검찰이 재판 불가라고 항고했고 양창수 대법관이 말았는데 계속 캐비닛에 두고 지연시켜, 3년 더 걸려 재심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재심 재판이 2012년 시작되었고, 2014년 2월 14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강: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판결

문도 그랬어요. 법의 기술을 핑계대며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의 기술을 발휘하면서 자기들의 책임은 다 회피하고 검찰의 책임도 회피하게 해주는 이런 환경이잖아요. 한참 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법원장이 된 문무일이 에둘러 말했을 뿐이지요.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더불어, 유서 대필 조작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권: 그것이 민사소송을 하게 된 이유인가요?

강: 그게 핵심이죠. 재심에서 번복하여 무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후 가능한 후속 조치를 안 했죠. 국가는 항소를 포기했고요. 결국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강신욱, 신상규 검사, 국과수 분석실장 김형영 등 3인과 국가까지 넷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 꾸역꾸역 이걸 또 했을까 자괴감도 있지만 말입니다. 또 제 돈을, 그것도 큰 돈을 써가면서 말입니다. 민사소송 시 청구액의 15%를 인지대로 써야 해요. 인지대가 비싸서 민사소송 청구액을 중간에 한 번 줄였습니다. 정확하게 액수가 기억 안 나네요. 그리고 2018년 고법 민사소송에서 졌습니다. ‘검사 개인의 책임은 없다’라고. 돌아버리겠더군요. 현재 대법에 올라가 있는데요, 여기에 최소 1억을 써야 합니다. 이 소송이 3년 째 대법원에 올라간 상태로 지연되고 있어요. 마치 강기훈 빨리 뉘져라. 너 할 만큼 했잖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기도 하지요. 제가 죽으면 이 재판은 종료될 것이고, 사건은 끝날 것이다 기다리고 있어요.

어쩌면 20대, 아까운 그 나이 때부터 쓸데없는 일에 매달려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회부적응자가 돼서 힘들었죠. 회사 아홉 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잠시 생계를 위해서 했던 노가다까지 치면 말이에요.
 권: 생업은 그렇게 되고 그 뒤로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의료비도 들어야 되고.

강: 몸이 아프게 되니까 선배들이 모금해서 8,000만 원을 마련해 줬고, 그걸 한동안 썼는데, 병원 다니고 수술비 들어가니까 금방 없어져요. 그 다음에 형사보상금이예요. 그게 한 2억 7000 정도 되나, 그리고 국가로부터 부분 승소했기 때문에 민사 소송 청구액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로 버티고 살아왔지요.

4. 1991년의 현재적 의미

권: 김기설 유서 대필 조작 사건도 과거사 진상 규명 사건들 중 하나가 됐습니다. 지금은 1991년 사건과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아까 “부채 의식”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부채 의식과 쓸데없는 짓이라는 두 가지 표현을 썼어요. 어찌 보면 둘은 양가적이고 충돌하는 표현인데요.

강: 부채 의식은 ‘내가 그때 잘 싸웠으면, 그 시절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을 걸’ 하는 생각이지요. 꿈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럴 땐 잠을 더 이상 못 자요. 그때 사태의 흐름을 바꿨다면, 내가 좀더 깨어 있었다면, 그때

하나하나의 순간에. 그때 무심코 흘러버린, 1991년의 순간들. 내가 정
신적으로 힘들어서 잘 못 봤던 것들. 그에 대한 부채 의식이 있고 지금
껏 그것을 못 떨쳐내고 있지요. 내가 이 사건에 잘 대처하고, 제대로 말
을 하고, 치열하게 싸웠으면. 28살의 강기훈이 좀 더 이성적이고 잘했
다면 … 운동가는 못 되더라도 활동가로서 말입니다.

나 개인이 무엇을 했던가. 무엇을 하긴 했는데, 근데 그 정도로는 당시
턱도 없었어요. 뭐라도 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시도하려
했습니다. ‘어디 고공에 올라가서 투신하자, 내 무죄를 증명하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권: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한 이유는?

강: 어떤 면에선 쓸데없지요. 그것에만 매달려 살진 않았지만 결국 그 프레
임 안에서 살아온 셈입니다. 벗어날 방법이 있었는데 결국 돌아섰고
요. 일본 면접까지 잡은 2005년이 그 기회였죠. 근데 그때 하필 진상
규명 대책위가 뒀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조사한다고 하고. 그렇게
보면, 한 해도 그냥 넘어간 해가 없었어요.

2007년부터 진상 규명 활동이 본격화되었고, 나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인터뷰 등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어찌면 검찰
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내가 확실히 보수주의자인
데 말입니다. 어찌면 검찰과 법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내 시간을 쓴
것 같아요.

권: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강: 이 소송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그게 가장 중요한 의

미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에 기회를 준다는 약간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이상 옛날처럼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전체적으로 역사적 의미는 이젠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기록은 다 남겨졌고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무엇을 갖다 붙이든, 그런 것에 더 이상 분노하지 않습니다.

권: 가해자들이 모두 그 사건 이후 출세도 하고 잘 살고 있어요. 대법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되고요. 강신욱, 곽상도, 김기춘 등이죠. 곽상도 의원이 최근 이 건으로 날아간 게 아니라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와 화천대유와 연루된 ‘50억 클럽’ 때문에 날아가는 것도 정말 아이러니잖아요. 국가범죄의 하수인이었던 자가 이 사회에서 제대로 단죄되지 못하고 출세까지 하다가 이런 개발 비리 건으로 무너졌다는 점이 말입니다. 곽상도 이름을 언론 지상에서 보면서, 강기훈 본인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강: 복잡하니까요. 사실은 돌아보고 싶지 않은 어떤 시간들이잖아요. 그런 사건들은 해석도 잘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인간 세상사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에는 분노하지 않아요.

권: 2022년 대통령 선거판도 벌어지고 하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곽상도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다고, 1991년 김기설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너무 속이 뻘해 보이지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곽상도를 날리는 데 그 사건 이야기를 들먹이는 걸 보면서.

강: 그게 물타기 하는 것이지요. 그게 과거사 피해자를 소비하는 방식입니다. 현대사의 여러 비극들을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고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지요. 그 사람 인생, 가족, 그들에겐 현재까지 진행 중인 일인데요, 과거 감옥살이로 끝난 것이 아닌데요. 이는 민간인 학살의 경우도 제주 4.3항쟁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역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권: 저는 처음에 우리가 민간인 학살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참 좋았는데요. 결국에는 강기훈이라는 국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 그 이전에 민간인 피해자들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왜 끝까지 국가범죄의 진상이 규명되고 가해자 처벌이 안 되는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가에 관해서도 얘기했죠. ‘그들이 바로 기득권 세력이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이고 역사를 정확하게 밝히는 데 뜻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강: 관심이 없을 때, 아니 그때는 적극적으로 막아버려요. 막는 이유는 뭘까요. 부담스러운 거겠죠. 이데올로기적으로 자기들도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문제가 될 테니까요.

권: 그것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했던 또 다른 이유인가요?

강: 그대로 다시 반복될 것이기에. 장흥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들 조사 기록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습시다. ‘우리가 그런 끔찍한 세상에 살았네’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을 이야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내가 그렇게 힘든 세상을 모진 세월을 살았다고만 합니다. 언제나 고백도 사과도 뒤늦게, 불철저하게, 그리고 누가 시켰다면서 뒤로 내뱉니다. 하지만 ‘나는

뒤에서 숨어 있었고 두려워했고 어쩌면 적극적으로 방조를 했다' 이런 고백이 누구 한 사람 입에서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기겠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권: 지금까지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 미해결의 문제, 미완의 과제이지요. 법원에서 재심까지 거쳐서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결국 그 피해자가 민사소송이라는 방식으로 다시 이 문제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는 거 자체가 말이지요. 이 자체가 국가가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시인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렇게 우리를 긴장하고 경계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매달려 온 긴 시간을 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이 점에 있다고 봅니다.

강: 제가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변호사들이 진다고 다들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더라도 소송 서류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사의 경우 민사소송에는 기대하지 말라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지요. 그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지요. 경찰이 재정 신청을 해서 한 경우, 고문 경찰 이근안 정도만 예외였어요. 처벌의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처벌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개인들이 국가의 잘못된 명령에 항명을 하거나 거부를 할 수도 있겠지요. 1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도 좋아요. 그렇게 다음에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XXXX~~